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1/7~1/13

불교전문서점 조계종출판사 불교전문서점 향전 제공 02)2031-2070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그녀는 다시 태어나지 않기로 했다	조민기	조계종출판사
2	고광스님의 불교 도장 깨기	고광	불광출판사
3	참선 수행자를 죽비로 후려치다(백산무이스님의 참선경어)	원택	장경각
4	무언화	덕조	조계종출판사
5	나도 내 마음을 모를 때 불교심리학	보만	불광출판사
6	마음챙김의 시	류시화	수오서재
7	부처님의 생애와 교훈	한정섭	불교통신교육원
8	사랑하라 한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류시화 엮음	오래된미래
9	약사유리광 칠불본원 공덕경	원순 편역	법공양
10	위로와 평안의 시	김옥림	미래의서재

불서총판 운주사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요가디피카	선요가	아헹가/현천 역
2	능엄경주해	동국역경원	이운허 역해
3	화:마음의 불꽃을 식히는 지혜	운주사	틱낫한/허우서,허주형
4	한 생각 공부	한생각	종범 스님
5	진짜 나를 찾아라	샘터사	법정
6	아사나쁘라나야마무드라반다	한국요가출판사	사라스와띠
7	초기불교 이해	초기불전연구원	각묵 스님 지음
8	화엄경을 머금은 법성게의 보배구슬	오타쿠	김성철
9	티벳스승들에게 깨달음의 길을 묻는다면	하늘호수	초펠 편역/게시 소남
10	중론	오타쿠	용수 지음/청목 주석

괴로움을 놓는 단 한 문장



탁!
깨달음의 대화
법륜 스님 지음
정토출판
1만7000원

마음의 핵심 찌르는 '즉문즉설'
'깨달음의 촉발' 이끄는 문답
"답은 질문자 안에서 열린다"

여수령 기자 spero0821@hyunbul.com

법륜 스님(정토회 지도법사)의 신간 〈탁! 깨달음의 대화〉는 그동안 진행된 수많은 '즉문즉설' 가운데 마음의 핵심을 찌르는 대화들을 가려 뽑아 선문답 형식으로 엮은 책이다. 장황한 설명 대신 짧고 정확한 말로 괴로움의 실체를 드러냄으로써 복잡한 마음을 단번에 정리해 주는 처방전이다.

'즉문즉설'에서 법륜 스님은 늘 단호하다.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은 질문하는 사람 자신에게 있습니다."

사람들은 문제의 답을 바깥에서 찾지만, 스님은 질문자에게 다시 질문을 던진다. 대화를 이어가다 보면 어느 순간 질문자는 스스로 말한다. "아, 별일 아니네요.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책에 실린 대화들은 '탁'하는 그 깨달음의 순간이다. 괴로움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특별하다고 믿고 있는 마음이 괴로움을 키운다는 사실을 질문자 스스로 알아차리게 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즉문즉설'의 답은 문제 해결이라기보다 '깨달음의 촉발'에 가깝다. 삶의 문제를 없애 주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바라보는 마음의 틀을 바꾸는 것이다.

문답의 진행은 마치 선사들의 선문답을 떠올리게 하지만, 그 내용은 난해한 공안이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 누구나 겪는 고민들이다. 직장 상사의 말 한마디에 하루 종일 마음이 상하고, 가족의 태도에 분노가 일며, 타인과의 비교 속에서 스스로를 깎아내리는 평범한 괴로움들이다.

상사의 막말 때문에 괴롭다는 직장인에게 스님은 묻는다. "누가 쓰레기가 든 봉지를 던져줬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버려야죠." "받기 전에 쓰레기인 줄 알았다면 그건 누구 겁니까?" 질문자는 그제야 멈칫한다. 자신이 무엇을 붙잡고 괴로워하고 있는지, 그 순간 '탁!'하고 드러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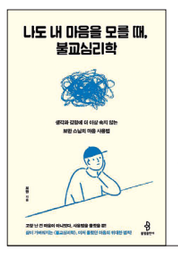
법륜 스님이 지난해 11월 7일 서울 정토사회문화회관에서 열린 '2025 청년페스타–세상을 향한 우리들의 움직임'에서 법문하는 모습. 현대불교 자료사진

법륜 스님의 비유는 짧고 날카롭다. 복잡한 심리 분석도, 윤리적 훈계도 없다. 다만 상황을 비틀어 보여줌으로써 질문자가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내려놓게 만든다. 짧은 문장과 대화를 따라 읽다 보면 독자는 어느새 자신의 괴로움을 떠올리고, 그 괴로움이 얼마나 허약한 기반 위에 서 있었는지를 알아차리게 된다.

법륜 스님의 '즉문즉설'은 질문자의 수준과 상황에 맞춰, 가장 이해하기 쉬운 언어와 비유로 마음의 실상을 드러낸다. 그래서 이 책을 읽는 독자 역시 질문자가 되어 대화 속에 자신의 마음을 비춰보게 된다.

이 책은 법륜 스님의 새로운 말이기보다, 부처님의 오래된 가르침을 지금 여기의 언어로 되살린 '현재진행형 법문'이다. 하루 한 문장, 한 대화씩 읽으며 '탁!'하고 멈춰 설 수 있다면 괴로움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감정에 속지 않는 '마음 사용 설명서'



나도 내 마음을 모를 때, 불교심리학
보만 스님 지음
불광출판사
1만9000원

마음의 구조와 작동 원리 탐구
'기억·견해' 순환 속 마음 작동법

"마음공부가 이렇게 재밌는 줄 몰랐다."

유튜브와 강연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보만 스님이 '불교심리학' 강의를 바탕으로 '마음 사용법'을 정리한 책이다.

보만 스님은 "마음의 구조와 작동 원리를 이해하면 생각과 감정의 파도 속에서도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 마음을 이해하기 위한 핵심 키워드로 기억·견해·정신을 제시한다.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한 모든 것은 기억에 저장되고, 그 기억은 세상을 바라보는 견해를 만든다. 그 견해로 세상을 해석하는 순간 또 다른 기억이 쌓이는데, 마음은 이 '기억-견해'의 순환 속에서 끊임없이 작동한다. 이처럼 생각과 감정이 쉴 새 없이 몰려와 마음이 고장난 것처럼 느껴지지만, 작동 원리를 이해하면 소란의 한가운데서도 자기 자신을 잃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심리학이란 이름을 빌려왔지만, 마음을 유추하기 위해 말과 행동을 연구하는 일반 심리학과 달리 '불교심리학'은 그 이면에 작동하는 마음의 구조와 원리를 탐구한다. 또 기존의 '나'라고 여겼던 틀과 생각, 관점에서 벗어나 '걸림 없는 나[無我]'를 확인하도록 한다.

책은 마음 사용 설명서를 크게 네 가지로 나눠 살펴본다. 마음이 어떤 부품으로 되어 있는지, 작동 원리는 무엇인지, 잘못 사용했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는지, 또 망가진 마음은 어떻게 수리할 수 있는지를 차례로 안내한다. 당장 마음이 힘든 사람이라면 나에게 필요한 상황별 회복 매뉴얼을 찾아 읽어도 좋다. 여수령 기자

수행자 설잠, 김시습을 다시 읽다



신편신역 김시습 전집 (전 6권)
심경호 신역 · 주해 / 부여문화원 · 매월당김시습기념사업회 / 비매품

설잠 스님 출가·시대 인식 조명
선·교 아우른 수행의 흔적 좇아

조선 전기 숭유억불의 시대를 살았던 김시습(1435~1493)은 대체로 '생육신'과 '천재 문인'으로 기억된다. 단종에 대한 절의를 지킨 충신, 혹은 〈금오신화〉를 남긴 문장가. 그러나 김시습의 또 다른 이름은 바로 삭발염의하고 구도의 길을 걸었던 수행자, 설잠(雪岑) 스님이다.

부여문화원(원장 박종배)과 매월당김시습기념사업회(회장 소종섭)가 펴낸 〈신편신역 매월당 김시습 전집〉(전 6권)은 500여 년의 시간을 건너 김시습을 '사상가이자 수행자'로 온전히 복원한 책이다.

수양대군의 왕위 찬탈 소식을 들은 김시습은 읽고 있던 책을 모두 불사르고 스스로 머리를 깎았다. 분노의 표현이나 은둔의 선택이 아닌, 세속 질서와 가치 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거부 그리고 새로운 길을 향한 결단이었다. 그는 과거 급제를 통한 입신양명도, 관직을 통한 현실 개혁도 선택하지 않았다. 대신 길 위에서, 전국의 산사와 명산을 유람하며 수행자의 삶을 살았다.

전집은 바로 이 지점에 주목한다. 김시습을 유교적 절의의 상징이나 문학사의 기념비로만 다루는 기존의 관점을 넘어, 불교적 세계관 속에서 그의 사유와 실천을 재배치한다. '생육신 김시습' 이전에 '수행자 설잠 스님'이 있었음을 분명히 드러내는 것이다.

전집에는 설잠 스님이 전국을 떠돌며 남긴 방대한 시문은 물론, 선학과 교학의 정수가 담긴 저술들이 체계적으로 정리돼 있다. 문장 곳곳에는 무상(無常)에 대한 깊은 성찰과 중생을 향한 자비심이 스며 있다. 특히 불교 관련 시문과 저술은 〈한국불교전서〉를 바탕으로 원문을 다시 교감해 오류를 바로잡았다.

전집의 또 다른 성과는 제목 그대로 '신편'과 '신역'에 있다. 기존 전집을 면밀히 검토해 오류를 바로잡고 새 자료를 발굴·보완했으며, 오늘의


설잠 스님이 입적한 부여 무량사는 해마다 10월 스님의 생애와 사상을 기리는 다례재를 봉행하고 있다. 현대불교 자료사진

독자를 염두에 둔 새 번역을 제시했다. 1493년 무량사에서 발간된 〈법화경〉 발문, 불갑사 소장 〈수능엄경〉 발문, 일본 내각문고에서 확인된 〈임천가화〉 등은 이번 전집의 학술적 성과다.

김시습 연구의 권위자로 꼽히는 심경호 고려대 한문학과 명예교수가 신편·신역·주해를 맡아 전집의 신뢰도를 높였다. 번역문 곳곳에 덧붙인 해설은 문장과 시대 사이의 간극을 메우는 다리 역할을 한다. '읽히는 전집'을 위한 이 같은 노력은 설잠 스님을 처음 만나는 독자도 사유와 문제의식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돕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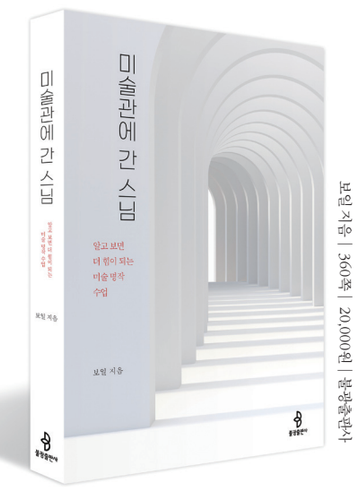
여수령 기자

"그저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힘이 되는 그림이 있나요?"

서울대 철학박사 보일 스님의
내 삶을 위로하는 명작(名作) 읽기!

34명 예술가의 삶과 작품으로
배우는 인생의 지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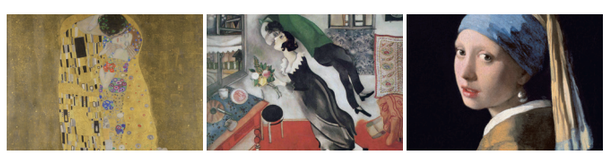




미술관에 간 스님
알고 보면 더 힘이 되는 미술 명작 수업
보일 지음 | 360쪽 | 20,000원 | 불광출판사

"예술은 고통을 다루는 가장 다정한 방식이다"

고통 속에서 해방의 길을 찾아낸 대가들의 기록,
불후의 명작을 불교적 사유와 통찰로 재해석하다



보일 스님
신간 출간 기념 북 콘서트



- 일시: 2026년 1월 13일(화) 19시
- 장소: 책다방 with 카페꼼마(서울시 구로구)
- 모집 인원: 20명(선착순)
- 참가비: 무료
- 참가신청: 아래 QR 코드 접속 후 참가신청서 작성

불광출판사 전화 02) 420-3200 I www.bulkwang.co.kr I 불광미디어